

농어촌공사, 김현권 농특위 탄소중립위원장 특강… ‘탄소중립 실천 박차’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김현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을 초청해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미래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공사에서 시행하는 ‘미래전략 아카데미’로 공사 임직원의 전략적 사고와 분야별 트렌드 지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김현권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탄소중립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배출 감축 및 제거 등 다양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병호 사장은 “미래농업의 핵심 선도기관으로서 농어촌 탄소제로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접근을 통해 미래경영 대응방안을 발굴하고 실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